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 성폭력 사건

약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약대에서의 움직임

약대 게시판에는 성폭력가해자 구교수 퇴진운동 00일째 라는 표말이 붙어있다. 그리고 지금은 78일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다. 이 날짜는 정선배가 성적 피해를 입고 총장에게 자신의 지도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던 지난 3월11일 이후부터 하루씩 새어나간 것이다. 총장에게 진정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정선배의 의지대로 별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지만, 실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아직도 흔들림없이 당당히 검찰과 자신의 지원자들을 만나고 있다.

약대학생회에서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3월11일에 총장에게 제출되었던 진정서를 약대 한 학우의 복사본 발견으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구교수의 성폭력문제를 직접 접하게 되었다. 진정서의 내용을 읽어본 학생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약대에 아무리 여학생이 많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성적피해는 음성적으로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약대에 이런 문제로 들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성적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약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일로만 여기거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는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약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불감하고 있던 문제가 약대에서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학내 성폭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교수-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대학사회내에서 당연시되는 교수-제자의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했다.

이 일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으며, 좀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우선 약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정선배를 찾아뵙기로 하였다. 지난 화학과 우조교 사건에서 우리는 피해 당사자본인이 직접 대자보를 붙이고 총학생회를 찾아가던 모습을 떠올리면 그분이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먼저 본교 약대 82학번인 정선배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들어보고, 문제해결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학생회는 약대 대학원선배들과 함께 약대 공동대책위를 만들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해결을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우선 정선배와 함께 대학원생활을 했던 실험실 선배들을 찾아 뵙고, 진정서의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그리고 구교수가 총장에게 진정서에 대해서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에서 구교수가 부인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아냈다. 정선배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은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낄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구교수와 그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진술이 너무 명백했으며, 정선배는 여러가지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상조사는 진정서의 내용공개와 약대 학우들과 이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내용의 약대내 대자보 즉, 약대내 선전 활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약대에서는 각학년별로 이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약대 대학원 선배들도 실험실마다 대표자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해나가기로 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답변을 얻어낸 이후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약대비상대책위에서는 [진상조사결과]를 마련하고, 이후 약대전체학생총회에서 [진상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그 총회자리에서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약대대책위는 명백하게 성폭력이며, 교수로서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는 결론으로 구교수의 퇴진과 대학본부의 교수징계와 선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결과가 나온 이상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며, 약대 구성원 모두는 책임있는 자세로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약대대학원생들은 전체이름으로 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뒤이어 약대 학부생들도 모두의 서명이 들어간 서명용지와 함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탄원서에서는 네가지 정도를 요구했었다.

첫째, 구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여 정선배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공개사과하고 더 이상 교수로서 자질이 없기에 자진해서 교수직, 사퇴하라!

둘째, 대학본부는 대학사회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정서에서 정선배가 요구하는 바대로

구교수에 대해 징계하라!

셋째, 대학본부와 구교수는 정선배를 비롯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배상을 촉구한다!

넷째, 대학본부를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은 성폭력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약대(제약학과/약학과) 학부3학년들은 구교수가 담당교수로 있는 [생화학 실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더이상 성폭력 교수에게 수업이나 실험들을 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꿈쩍하지 않았고, 약대교수들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약대대책위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진상조사를 했지만, 결론 없는 앙상한 진상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본부와 검찰에 제출하였다. 꿈쩍도 안하는 대학본부에게 며칠간의 여유를 두고 두번째로 제출한 진정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기다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대학본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적반하장격으로 구교수가 먼저 정선배를 비롯한 5명에게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를 씌워 검찰에 고소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은 법정으로까지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우선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꼬리를 빼고 있다. 구교수의 고소문제로 이야기를 옮겨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먼저 고소한 구교수는 법정에서는 보호받고 자신의 죄가 지워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이번 문제를 대학본부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았을때, 정선배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구교수가 정선배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두가지 축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선 법정으로 문제가 확장된 이상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오히려 성적피해를 입힌 구교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야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대학사회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대학내에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구성원 모두가 성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함과 동시에 대학구성원 전체이름으로 성폭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배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학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학칙 제정이 이번 기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약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악학우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 뒤늦게 대자보가 붙게 되었고, 약대성폭력문제에 대한 여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동아대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엔 아직 학칙제정에 대한 여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약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징계와 배상을 시작으로 관악내에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8일 언론에서는 일제히 약대 구교수가 구속된 사실을 보도했다. 구교수는 4월 하순경 정선배와 정선배의 아버지, 그리고 진정서와 관련된 다른 3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선배 측의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거꾸로 구교수가 '무고'죄로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고'죄라는 것에는 구교수의 성폭력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혐의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학에서는 본부에 구교수를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구교수 징계와 관련된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

	성00	주00	이00	오00	조00	정00	김00	이##	김00	주##
90	↑ (박사)	↑ (석사)	↑ (박사)	↑ (석사)						
91										
92		(박사)								
93			시간1	휴↓학	(석사)	↑ (석사)	↑ (석사)			
94	시간2				↓	↓	↓			
95		졸↓업		시간3	시간4	시간5		↑ (지퇴)	↑ (지퇴)	↑ (군대)
96						(박사)				
97	↓	↓				↓				

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공대위는 구교수 퇴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다음은 약대공동대책위에서 진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교수는 총장님에게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약 60장 가량의 반박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과연 누가 구교수를 모함하고 있는 지 밝혀 보고자 이렇게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진상조사 결과

진술서, 답변서, 공개 질의서 등의 관련인물

성00 : 학부 82, 석사 86 졸업 후 2년간 약국 근무 후에 90년 박사 과정 입학.

주00 : 90 석사(남), 92 박사과정, 97년 졸업 예정 중.

이00 : 88 석사(남), 90 박사 95년 중반에 졸업하고 현재 회사 근무 중.

오00 : 90 석사(여), 93 박사 중 94년 4월 휴학, 95년 복학하고 박사 수료.

93년의 **시간1**과 관련됨

강00 : 93년 석사(여), 96년부터 박사 과정 중.

조00 : 93석사(여), 졸업 후 현재까지 유학 중. 93년 오00과 **시간1**과 관련됨.

정00 : 93석사(여).

이## : 95석사(여), 95년 중반 지퇴. **시간 4, 5**와 관련됨.

김OO : 95석사(여), 95년 중반 지퇴. **사건 3, 4**와 관련됨.

주## : 95석사(남), 95년 중반 군입대.

[진상조사 결과- 본문]

학부 82학번인 정OO 선배는 90년도 구양모 교수님 생화학 실험실 박사과정 지원자 이OO, 고OO, 정OO 중 이OO씨와 함께 입학하게 된다. 94년 4월 마산으로 교수님과 식물채집을 가기 며칠 전 석사 90학번인 오OO후배로부터 93년도 가을에 교수님과 식물채집 갔던 일의 개요(사건 1)를 듣게 되고 마산에서의 채집사건(사건 2)을 겪게 된다. 식물채집을 다녀 온 다음날 실험실에서 후배들이, 선배가 채집도 하지 않고 혼자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후배들(88 이OO, 90 석사 주OO, 93 석사 강OO)에게 마산에서 있었던 일(사건 2)을 얘기한다. 며칠 후 열방 실험실에 친한 동기에게 얘기하고, 그 당시 화학과 남자선배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 한달 정도 지난 후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후배 오OO를 우연히 도서관 앞에서 만나 마산 채집 갔던 일을 얘기한다.

95년 석사 3명(여학생 이##, 김OO 남학생 주##)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후배 김OO이 실험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교수님과 정계천에 갔다가 술집에서 손 한 번 잡아보자고 하는 바람에 놀라 뛰쳐나온 일(사건 3)이 생긴다. 후배 김OO은 정선배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때 정선배도 94년 마산 채집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된다. 교수님이 석사 3명에게 술을 사주신 일이 있는데, 술자리가 늦어져 여학생 이##, 김OO이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지자 술잔 후 데려다 주시겠다는 교수님 말씀에 교수님택에 들어갔다가 당혹스런 일을 당하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뛰쳐나온 일(사건 4)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후배 이##은 정선배와 열방 실험실 동기에게 그 일을 얘기하게 되고, 정선배로부터 마산 채집 사건과 동기 이##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93년 가을 식물 채집을 갔던 선배들의 얘기까지 듣게 된다. 그 후로 후배 이##은 교수님을 더 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시골 고향집에 가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퇴근길에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아 당황한 일(사건 5)을 겪게 된다. 진로 문제와 교수님과의 갈등 문제로 고민하던 중 후배 김OO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후배 이##도 같은 이유로 2학기 등록은 했으나 구교수 밑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실험실을 나오게 된다. 남학생 주##는 군입대를 하게 되어 95년 2학기에는 실험실엔 박사 6년차 정선배, 박사 5년차 남자 선배, 박사 4년차 남자 선배, 박사 1년차 여자 선배, 석사 2년차 여자 선배가 남아 있게 된다.

95년 10월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서류를 내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라고 할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6년 4월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나게 된다.

19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OO씨 졸업해”라고 얘기하고 정선배는 주변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논문제출 심사를 거부당하게 되고, 정선배는 참담함 속에 실험노트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수요일날 대구집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토요일날 교수님의 전화로 인해 부모님께서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되고, 일단 사제간의 관계회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정선배는 19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교수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3월 11일 총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교수님은 3월 18일, 19일 두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했고, 4월 7일 정선배는 2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상은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개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약대 공동대책위는 정선배의 진정서, 교수님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1~5에 관련된 본인들과 당시 실험실에 같이 있던 대학원생들의 진술(직접면담, 전화통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진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1/ 93년 가을 식물채집

-진정서-

사실 교수님과 동이서만 채집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후배 두명과 교수님이 채집을

다녀왔는데 후배들이 편지 대단히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채집 다니는 기간동안 교수님께서는 밤마다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 후배가 화장을 하고 있고 한 후배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누워있는 후배 옆에 눕더니 끌어안으려고 해서 누워 있던 후배가 소리를 지르고 날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교수의 3월 18일자 답변서-

오후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밤늦게 창원군 동면 금산리 금봉부락의 동생집에서 자고 둘째날부터 셋째날 오후 2시까지 채집하였고 셋째날 마산에서 오후4시차 고속버스로 학생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학생 2명과 채집 중 1박은 창원시 동면 시골구석 동생집에서 숙식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동생 집안 식구들이 휴가여행을 가서 집이 텅텅 비어 있어서 본인과 2명의 학생은 그 집에서 저녁 내내 한 피아노를 치 그것을 감상하면서 지냈습니다. 2박은 남해도의 민박을 하였는데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 한 방에 학생 2명이 자고 있었는데 본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한 학생이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고 다른 한 친구가 그냥 계속 누워 자고 있어서 '지금 9시가 넘었어. 야, 너 안 일어나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니 그때서야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에 한 학생이 열의 문을 열어주고 방에 서 있는데 누굴 댔냐니 어느 누가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날은 채집중에 비가 계속 와서 옷이 흠뻑 젖었고 또 계속 여러 곳을 다녀야 하니 학생들은 차 속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계속 모두 자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반 동안 함한 철쭉의 본인 아버님 과수원 근처 야산, 거제도 전체, 그리고 남해도 전역에서 채집한다고 매우 바쁜 일정이어서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바쁘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닐 때가 유익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약용식물채집에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학생들은 차만 타면 모두 정신없이 자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개 질의서에 대한 조OO(이 사건 관련자) 선생의 답변

나와 조OO이가 구교수님을 따라 채집을 갔던 것은 93년 8-9월경이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식물의 꽃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가야한다며 서둘렀던 생각이 난다.)

구교수님과 지낸 일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 여행도 되도록 잊고 싶은 기억이었고, 3년반 이상이 지난 지금은 당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진술서에 기록된 부분만큼은 당시 매우 쇼크를 받았던 까닭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남해 상주 해수욕장의 민박집에서 둘째 밤을 지내고 난 아침, 나는 세수를 하러 나갔다가 방에 돌아오는 길에 구교수님을 만났고 조OO이는 아직 안 일어났느냐는 물음에 곧 깨우겠다는 대답을 한 후 방으로 들어왔다. 경계심에 밤새 문을 푹푹 걸어 잠그고 잤으나 세수하러 갔다는 후엔 아침이어서 크게 걱정을 안해서였는지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와 앉아 화장도구를 챙기고 있는데 문 밖에서 구교수님의 예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OO아 너 아직 안 일어났니? 빨리 안 일어나면 내가 들어가서 꼭 껴안아 버릴거다~" 다급해진 내가 조OO이를 깨우면서 문을 잠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교수님이 들어다쳤고, 그 때까지 잠이 덜깨 누워 있던 조OO이 위로 교수님이 확 덮쳤다.(말 그대로 덮치는 동작만 연상해야지, "덮쳤다"는 말에 다른 의미를 상상하지 말기 바람) 당연히 조OO이는 꽤 비명을 지르며 튀어 일어났고, 교수님은 소리내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엉뚱하게도, 문 밖에서 했던 교수님의 톤 높은 대사와 조OO이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민박집의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고, 정말 한없이 창피했던 기억이 난다.

서울에서부터 채집하는 기간동안 교수님의 승용차로 이동을 했는데 교수님이 운전을 하시는 터라 학생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조수석에 타야했고 둘이 서로 안 타려고 눈치를 보다가 결국 조수석에 앉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기분이 되곤 했었다. 조수석에 앉은 경우엔, 예의 그 음담패설과 야한 농담을 경청하는 태도로 장단 맞춰가며 고스란히 들어야 했고, 교수님이 학생의 무릎을 꼬집거나 손을 잡고 했기 때문에 정말 보통 고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날엔 교수님이 해수욕장에 놀러가자고 졸라대셔서 몇번 완곡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서게 되었다. 해수욕장에서도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고 성화를 하셨으나, 거기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후에 바닷가 마을에서 잠시 식물채집을 했고, 밤이 오자 교수님이 술을 마시자고 졸라대어 바닷가에 줄지어선 노천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교수님은 마산에 남고 우리끼리 고속버스로 서울에 올라왔다. 조OO이는 교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교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유난히 싫어하는 학생이었고, 나는 미국에서 귀국(93년 1월)하신 후 차츰 이상해지는 교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차에 채집여행 도중의 크고 작은 일들로 무척 쇼크를 받은 상태여서, 귀경길에 두사람 모두 무척이나 기분이 상해 있었다.

내가 당시 받은 느낌으론, 교수님은 마치 애인을 거느리고 소풍나선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 제3자가 보기

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채집중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어느 한식집에서, 교수님의 농을 들던 식당아주머니가, 나중에 나오려는 우리에게 저 사람 교수맞냐고 재차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같은 큰 딸이 있다면 절대 저런 사람 믿고 여행 따라 보내진 않을게다”라고 얼굴을 찌푸리며 힐난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무안했던지...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 약혼자(지금의 남편이 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OO이는 워낙 기분이 상한 탓이었는지 선배의 약혼자를 보고도 시큰둥하게 인사 한마디만 던지곤 사라져버려 약혼자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약혼자가 걱정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속상한 걸 주체하지 못해 그 늦은 밤에 터미널 벤치에 앉아 30여분 이상 울면서 여행 중 있었던 일들과 심경을 이야기했었다. 남편도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공개 질의서에 대한 정선배의 답변-

오OO과 조OO이가 93년 가을, 교수님과 채집을 다녀온 후 몹시 힘들어했다. 실험실 선배로서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밤마다 술 먹자고 조르고 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교수님과 채집가기 전에 오OO에게 다시 물었는데 ‘교수님이 아침에 여관방에 느닷없이 들어와서 조OO을 덮쳤어요. 조OO이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라고 했다. 채집다녀온 후 한달 정도 지나 중앙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오OO을 만나 채집가서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였는데 오OO도 다시 자신이 채집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이## 선배의 진술서-

실험실 선배들을 통해서 졸업한 선배언니들이 교수님과 식물채집을 갔었을 때에도 언니 단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서 당황스럽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교수님과 단들이 있게 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게 되었고 되도록 부딪치지 않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서문 2/ 94년 4월 정선배의 마산 채집

-진정서-

1994년 4월 28일, 채집을 하기 위해 교수님 동생이 사시는 마산 근교의 시골로 출발하였습니다. 채집한 식물을 싣고 와서 곧바로 말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니 교수님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교수님은 계속 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화제를 돌리려고 소설내용도 이야기하고 실험실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Sexual ...”이란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왜 교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항상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사가 그것밖에 없나봐요. 정말 세대 차 느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했더니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비롯해 몸을 군데군데 꼬집고 가슴을 만지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지? 나랑 같이 여행가면 얇게 입고 와야지. 벗대가리가 없어서...”라며 화를 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교수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팔짱을 끼고, 휴게소에서 산 음료수가 든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 좀 잡아보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억지로 힘을 써서 잡았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나 있다고 “너는 참 좋은 여자다. 흥분했다는 증거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만나면 상대방에게 ‘몸이 뜨거워졌나?’ 라고 남자가 물어서 여자가 ‘뜨거워졌어요’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sex하러 가자’라고 하고 sex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손에 땀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지나 마산으로 가는 구마고속도로에서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교수는 “오늘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구마고속도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너랑 같이 와서 운전은 조심해서 그런 것 같다.” 고 했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으므로 교수님 동생 때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 댁에서 자는 거죠?”라고 물었더니 “대구에서 왔다고 예뻐하게 말해라.” 고 했습니다. 얼마 가다가 “너 오늘 어디서 잘 거냐?”고 물어서 “교수님 동생 댁에서 자는 것 아니예요?”라고 대답했더니 “미쳤니? 오늘 너 내 품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봐도 불편해서 밖에서 자는데...”라고 말해서 “밖에서 자도 방을 2개 얻어야죠. 어떻게 둘이 자요. 부너지간에도 딸이 성정하면 아버지와 한방에서 자지 않는 법인데...”강경하게 말했더니 “미친년, 애들에게는 내 동생 집에서 잤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종일 채집하면 식물을 얼마나 채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식물채집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나 보면 되지. 무엇보다 우리 둘이 정을 나뉘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경 마산에 도착하여 교수님은 호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려고 하니깐 저에게 차에 있으라고 하면서 방이 없을 지도 모르니까 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좀 지나서 방이 있다고 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 교수님 손에 연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8층에 내려 “제 방은 어디예요?”라고 물었더니 “내 방이 어딴지? 일단 들어와 봐라.”라며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교수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농담하시지 말고 제 방옆으로부터 주세요. 침도 내려놓고 씻고 자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채집을 하죠.”라고 했더니 “농담이 아니다. 일부러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달라고 했다. 씻으려면 화장실 문 잠그고 씻어라. 아니면 내가 씻겨 줄까?”라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 “그럼 다시 방을 하나 더 얻겠다.”며 가방을 메고 나서니까 문쪽으로 가서 도어 위의 문고리를 잠그려고 했습니다. 저는 교수 팔을 잡고 죽을힘을 다하여 문고리 잠그려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문고리가 잘 잠기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며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독종 같은 년, 내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 너는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지 내 생각은 조금도 안하는 이기적인 년이다.”며 마구 화를 내더니 갑자기 저의 걸음으로 다가와 뺨을 때리며 팔을 비

듣고 침대로 밀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내게 죽음과 같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교수를 제몸과 발바닥을 치며 죽기로 할거하자 교수가 잠시 주춤하고 저는 재빨리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교수가 쫓아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한 말은 '방을 하나 더 얻든지 교수님께서 나오시면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갇히서 2시간 동안 교수는 제게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욕설들이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것은 발가벗겨나도 아무도 안 건드릴 거다. 얼굴도 엉망이고 몸에도 엉망이다. 네가 여자로서 매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썩은, 미친년. 지난번 피자 먹고 나서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그냥 집에 간다고 해서 속으로 썩년이라고 욕을 했다. 너는 내게 장이 있느냐?... 너가 내 발가닥을 뽐 정도로 종이 안되면 1998년 2월이 되어도 박사학위를 줄줄아느냐? 너는 우조교보다 더 악종이다. 그렇게 땃대가리가 없으니까 시집을 못 갔지. 너는 선천적으로 악한 년이다. 너는 내게 장이 있어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준 적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더 이상 제게 덤벼들지 않고 욕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넋을 잃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조교 사건으로 교내가 한참 시끄러운 때여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아 우조교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마을 호 타고 서울 가라며 이 반원을 주고 학교를 그만두라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학위를 받아도 따라다니며 취직을 해방놓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나갔습니다. 실험실에 나가자 말고 집에 있다가 (4월 28일이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나 나오고 실험실 후배들에게는 석물이 아직 안 자라서 채집을 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나가자 저는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지만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도 조그만 소리가 나면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가 잘 잠겼는지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창문으로 달려가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날이 빨리 밝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멈춘 듯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중략)...다음날 실험실에 나갔습니다. 후배들은 저 혼자, 채집도 하지 않고 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저는 후배들에게 제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수의 3월 18일자 답변서-

졸업을 시키어야 하는 데 본인 혼자서 식물채집을 가라고 하니 가지 않고 하여 본인이 바쁜 시간을 내어 그것도 토요일 오후 4시에 출발하여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서울에 돌아온다고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정OO이 이야기대로 이런 일에 따라갈 학생은 없었고 본인이 식물채집장소까지 데리고 가면서 성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NIH에 있을 때 single club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고 미국처럼 너 아직 결혼 못하였는데 나라도 single club 만들어 지성인들의 독신자들이 서로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정OO은 선생님이 만들면 니가 많아서 가입 안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중략)...마산에 도착하여 아무데서나 재울 수가 없어서 그것도 못데관광호텔로 방을 얻어 주었습니다. 짐도 날라 주고 방의 위치도 알려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뒤에서 자기방을 따로 구하여야 한다고 야단을 하고 너무나 시끄럽게 호텔 복도에서 떠돌아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데리고 들어가 너 여기서 자고 나는 내 집에 가서 자면되는데 왜 그렇게 물상식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야단하고 '너 두 번 다시 나를 그렇게 매도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한분의 정도 없는 것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너도 성인으로 인격체이고 나도 성인으로 인격체인데 나를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리고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창녀를 데리고 자면 잡지 너하고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창녀보다 더 더럽고 못하다. 정말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사이 성관계를 연관시키지 마라.'라고 정말 20분 이상 격분해서 야단을 치고는 '내일 내가 너 데리러 올려고 하였는데 너 데리러 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가라. 우리 식료채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는 마산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자고는 본인은 그 다음날 혼자 가서 식물을 채집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배의 답변-

(마산 채집사건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4월 28일 마산으로 채집갔다가 사건으로 4월 29일 서울로 돌아왔음. 4월 30일 실험실에 있던 후배 주OO, OO, 강OO 등에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됨. 일주일 정도 지나 실험실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유OO, 강OO(이OO 교수님 실험실에 있는 학생)에게 얘기함.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김##에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됨.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OO 선배의 답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들었던 것은 94년 5-6월 경으로, 마산 사건으로 있을 후 한두달 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험실 후배를 우연히 만났고, 그 후배에게서 실험실 소식을 들던 중에 마산 사건의 대강을 들었으며, 후에 정선배를 만나서 좀더 자세한 전말을 들었다. 진정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상생하는 아니었으나 마산에 가는 승용차 안에서의 성적희롱, 마산 호텔에서의 강간미수사건과 폭행. 그래서 다음날 새벽 정선배 혼자 귀경하게 된 일. 그 이후의 정선배의 참담했던 신경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은 당시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나, 평상시의 구교수님의 언행으로 미루어, 또한 정선배의 성격과 태도로 미루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했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김OO이와 함께 구교수님 집에 갔었던 다음날 정OO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산에 식물채집을 갔다가 호

텔에서 교수님이 방을 하나만 잡았고 언니는 방을 하나 더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으며 그 와중에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한다고 방에 불려들어가서 혼이 났고 그 때 '너는 성적 매력이 없어서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느니 '철저하게 자기 종이 되지 않는 한 졸업은 못한다' 하는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OO 선배의 답변(전화통화)-

그 당시에 실험실에는 정선평밖에 없어서 청계천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으니, 정선평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한다며 마산 채집 사건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강OO 선배의 답변-

정선평가 마산 채집을 간 후 예상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빨리 올라와서 놀았다. 정선평로부터 진정서에 서술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들었다. 구교수님께서 마산 갔다오신 후 몇주일간 실험실에 들어오지 않고 교수님방에서 게셨다. 교수님께서 한동안 정선평을 피하셨다.

사진 3/ 95년 청계천에서 김OO 선배에게 있었던 일

-진정서-

한 후배는 실험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교수님과 청계천에 자주 가야했는데 하루는 교수가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자고 종라서 다방엘 갔는데 교수가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하는 바람에 놀라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평의 답변-

S이 교수님과 청계천에 다녀온 후 다음날 (95년 1학기) '다방에서 교수님이 손잡자'고 해서 놀라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마산에서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다.

-이## 선배의 진술서-

당시 교수님들과 실험을 같이 준비하던 실험실 동기 여학생이 교수님과 함께 청계천에 기기를 사러 나갔다 온 날 저녁에 교수님이 술집에서 손을 한 번 잡아보자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놀랐고 그 후에 실험실 선배들을 통해서 실험실을 마치고 졸업한 선배언니들이 교수님과 식물채집을 갔었을 때에도 언니 단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서 당황스럽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교수님과 단들이 있게 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게 되었고 되도록 부딪치지 않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구교수 내용증명 요구에 대한 김OO 선배의 진술서-

제가 연관된 두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말했던 때는 사건 이후 바로 다음날 실험실 사람들에게 었고 (학교 재학 당시임) 정##씨에게 근래들어 진술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다방에서

교수님과 청계천에 갔다가 뉴코아 백화점 부근의 햄버거집에서 저녁을 먹고 어떤 이유로 (주차, 지하철 연결 문제로 생각됨) 교수님 택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겠다고 도망가다시피 하는 저를 부득이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여 교대역 부근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하여 너무 놀라 잠시 멍해 있다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저 집에 갈래요'라고 말한 후 황급히 찻집을 나왔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김OO에게서 교수님이 손을 한 번 잡아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 실험실 선배들에게서 전에 있던 선배언니들이 교수님과 식물채집을 갔을 때 들어와서 당황스럽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4/ 95년 김OO, 이## 선배의 교수님 댁에서의 일

-진정서-

'교수님이 우리 둘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교수님과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빈 택시도 없고 방향이 달라 합승을 할 수도 없었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안 간다고 버티다가 교수가 억지로 차에 태워 사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옷을 모두 벗은 채 파자마만 입고 나와 깨안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서 교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교수님의 3월 19일자 2차 답변서-

본인은 현재 왜 그날 늦게 까지 있었는지 기억이 없으나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확인된 것은 보건복지부과제 결과 보고 및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이##에게 일을 늦게까지 시켰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1학년 여학생2명, 남학생 1명이 어디서 잠깐 들렀다가 가자고 하였고 이때 주##이 교수님 댁 근처인 교대 쪽이 어딘가하고 제안하였다고 김OO이 밝힘). HOF 집에 있다가 12시가 가까이 되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집에 돌아 가야하니 본인은 주##에게 그리고 김OO에게 2만원택시를 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은 김OO이 보고 좀 제워 주라고 하였습니다. 김OO이가 이##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는 것이 싫어하는 눈치가 역력하였고 이##은 작은아버지 집에는 말고 또 밤늦게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북에 사는 주##은 길 건너편에서 쉽게 택시를 탔는데 이##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이##과 김OO이 1시간 가까이 택시를 못잡아 안달을 하였습니다. 어음 밤 (6월 중순으로 생각됨)에 그날 따라 집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많았고 자정이 넘어 새벽 1시가 되었는데 때도 길가에는 사람들이 불빛과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옆에서 서서 이를 지켜 보다가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집이 열이니 들어가 쉬었다가 30분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잡아 보자고 하니 본인도 피곤하고 학생들도 피곤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여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하니 김OO과 함께 우리 집에서 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이 김OO이 보고 이##과 함께 자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김OO과 이##도 본인의 집을 떠나 택시를 잡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선생의 진술서-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제출 마지막 날(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날이 마지막날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날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점심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오후 4시경에 들어와서 교수님께 심하게 혼이 났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일이 끝났고 교수님께서는 석사1년차들에게 술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늦고 동기여학생의 집이 학교옆 낙성대였기 때문에 동기여학생과 저는 낙성대 근처에서 마시자고 했었는데 동기남학생이 물이 좋은 강남에 가서 마셔야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교수님도 차가 있어서 교수님집 근처가 좋겠다고 하셔서 결국 교대역까지 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기여학생 집에 가서 함께 자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함께 있었는데 남학생은 쉽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갔는데 동기여학생과 저는 낙성대방향으로 가려는 택시가 없어서 한참동안이나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의 택시가 서지 않으니 교수님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교수님께서 술이 깨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사시는 교수님집에 늦은 시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웬지 내키지 않아서 사양했으나 교수님은 막무가내였고 할 수 없이 우리는 교수님이 술이 깨면 데려다 주신다는 이야기만 믿고 교수님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가는 것이 낯졌다고 여겨서 그냥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자는 시간에 집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가자던 교수님의 말씀은 그냥 자고 가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곧 셋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셋고 나오시면서 교수님은 파자마와 런닝차림이었고 주무시겠다고 침대밑에다 자리를 깔고 누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저희더러 얼른 셋고 자라고 잡아당기셨고 교수님과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거의 도망쳐 나오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실험실에서 선배님들에게 우리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정OO 언니로부터 언니가 교수님과 마산으로 식물체집을 갔다가 호텔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교수님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런 지도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받아야하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생의 답변-

교수님과 김OO, 주## 그리고 저와 함께 술을 먹은 날(연구 계획서 작성 마지막 날) 김OO이와 교수님 집에 갔었고 (교수님의 강요에 의해), 그 때 교수님은 조금 쉬었다가 술이 깨면 데려다 준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집에 가서는 자고 가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 파자마와 런닝차림으로 우리들보고 얼른 셋고 자라시면서 발목을 잡아당기셨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망치다시피 뛰쳐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실험실 선배님들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배의 답변-

김OO이와 이##이가 '교수님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깨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파자마 차림으로 나와 우리에게 자고 가라고 했다. 김OO이를 껴안으려고 해서 놀라 도망쳐 왔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사건 3보다 뒤의 일임)

그래서 이##에게도 마산에서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고 처신을 잘 하라고 얘기하였다.

-구교수의 내용증명 요구에 대한 김OO 선생의 진술서-

2 교수님 댁에서

연구 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교수님이 석사 1학년 동기인 주##과 이##과 저에게 술을 사주시겠다고 하여 주##의 의견대로 교대역 부근의 호프집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정 정도에 호프집을 나왔고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야 했는데

제가 자취하고 있던 낙성대 쪽으로 합승해 주는 택시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이##이와 함께 있었는데 이##이도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늦으면 저의 자취방에서 자는 것을 서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같이 학교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저는 잠은 집에 가서 자야조라며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낙성대 방향의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따라 걸던 중 교수님 집과 가까워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다가 그럼 집에 들어가서 1시간 가량 있다 나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되면 tax peak time도 끝나 택시도 잡을 수 있고 혹시 교수님이 그동안 술을 깨면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밤중에 여학생 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양손으로 저희 둘을 거의 끝다시피 하여 교수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집이 원룸 아파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이##이와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교수님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은 후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상의는 반팔 소매 런닝, 하의는 혈령한 파자마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교수님은 한시간 후에 어떻게 또 나가니 하며 여기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옷을 갈아 입으라며 파자마 같은 옷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앉아 있자 아유 그래, 그럼 그래도 자. 갈아입지 말고 나는 침대 밑에서 잘테니 너희 둘이 침대 위에서 꼭 껴안고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같은 방에서 잘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집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수님이 말렸고 다시 주저앉으면 못 갈 것 같아 화를 내며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님 집에서 나온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저의 자취방에 왔습니다.

진정서 내용 중 껴안으려 하였다든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전달 같습니다. 이##이와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제 머리 위 왼쪽에 있는 스위치로 팔을 뻗었습니다. 이 때 불이 꺼졌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왜 꺼지나 하고 바로 불을 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 교수님이 팔을 뻗을 때 사예가 같이 기울어짐 -에서 제 얼굴과 교수님의 상체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지는 않았습니.

5/ 95년 이## 선배를 먹이남에 데려다 준 일

-진정서-

이만 후배는 '토요일 오후 시골 부모님 댁에 가게 위해 터미널로 가는데 교수가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고 여지로 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터미널로 안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친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터미널로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학생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한다면서 전주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다고 했더니 마구 화를 내면서 아무데나 내려줬어요 거의 수원까지 갔다가 되돌아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구교수의 3월 19일자 2차 답변서-

봄학기가 시작한 후에 6월 어느 토요일에 오후 2시경에 학교 사무실에 들르려고 오니까 그날도 이##이 현관 앞에서 멍하게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 여기서 뭐하는 거니? 집에 가지. 하였습니다. 본인이 사무실에서 집에서 할 일을 집어넣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데 이##이 집에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만일 이##이 가정 형편, 특히 금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가을 학기에 수업료 면제와 매월 5만원씩 주는 장학금을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기에 자충차로 집에 데려 주면서 이##의 고민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너 어디에 데려다 주면 되니? 하고 물으니 고속터미널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꽤 전주 같려고 하니? 내 전주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올라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너 왜 현관에서 매일 멍하게 앉아 있니? 라고 물어니 1시까지 남자 친구가 찾아 오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만나 친구가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략)**...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벌써 식당역 가까이 와 있어서 본인은 더 많이 이##에 대해 알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물어 볼 시간을 벌고 싶고 빠른 시간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개인적인 사정을 물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 언제 까지 고속터미널에 가야하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까지 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식당거리에서 남쪽으로 돌려 나가면서 전주에 데려다 줄 까하고 물어니 고속버스 타겠다고 하였다. 수원에 가서 기차를 타라고 하니 고속터미널에 가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속을 이야기 하지 않는 학생에게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연구를 더 열심히 하고 생활에 안정을 이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뒷받침할 이##의 숨은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중략)**...대화를 하다가 본인도 양재역에서 얼마나 내려 왔는지 몰르고 있는데 이##이 갑자기 왜 고속터미널이 안나오느냐고 하여서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 왔다고 하니 교수님 정말 황당무괴하네요라고 하여 야 뭐가 황당무괴하니 너가 오후 6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면 4시반이면 도착한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중략)**...그리고 '왜, 아직 시간이 많은데 일찍이 고속 터미널에 가느냐?'라고 하니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하였다. 미리 약속을 하였느냐라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하

면서 그냥 비스타에서 남자친구가 나타나도록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약속도 없이 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였고 본인은 이##을 호남선 고속터미널 앞에 내려 주었습니다.

-이## 선배의 진술서-

그 후로는 더욱더 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시골집에 내려갔다 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남자친구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서 내려가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남자친구의 연락이 늦어져서 실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교수님이 퇴근하는 길이니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가는 것이 꺼려져서 사양했으나 설마 대낮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무슨일이 있으라 싶어 교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낙성대 고개를 넘어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과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너무나 당황한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가정형편을 알아봐야 한다며 시골집까지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였고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으며 어이가 없어서 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만 했습니다. 교수님은 유괴당한 기분이나고 물으셨고 저는 그냥 황당할 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대전까지 데려다 줄테니 거기서부터 혼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했고 터미널에서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교수님은 약간 수그러진 태도를 보이셨으나 이왕 고속도로를 탔는 데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끈질긴 요구로 수원에서 차를 돌려 고속버스터미널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는 동안에 교수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사귀면 공부하기는 다 틀렸다는 말씀과 일찌감치 공부는 포기하고 시집이나 가라는 말씀을 내내 강조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일어난 일이라 학교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6월 중순 토요일 오후 시골집인 장수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같이 내려가기로 되어 있어서 실험실에서 연락을 기다리던 중 교수님이 집에 가시는데 터미널이 같은 방향이니 태워다 주신다고 했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당사거리에서 갑자기 터미널과 반대방향인 과천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제가 당황해서 이유를 묻자 지도학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한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렸고 교수님은 유괴당한 기분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황당할 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대전까지 데려가 주신다고 했었고 저의 끈질긴 요구로 수원에서 차를 돌려서 터미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돌아오는 길) 교수님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공부는 다 했다는니 일론 결혼이나 하라는니 하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장수 집에서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으며, 실험실 선배들과, 친구들(대학친구, 열방 실험실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백서 1/ 그##의 일상 언어 목록

-진정서-

교수님은 회식자리에서나 실험실에서나 교수님 방에서 실험에 대한 토의를 할 때나 온통 성에 대한 얘기였으므로 다음날 실험실에 나갔습니다. 후배들은 저 혼자, 채집도 하지 않고 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저는 후배들에게 제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35살 전에 결혼을 안하더라도 아이는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30살 전에 부모 집에서 나와 혼자 살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야 된다. 그러다가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면 된다. 아이만 생기면 된다.'고 했고 욕을 잘해서 욕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욕 잘하는 남자가 정력이 좋다. 어제 대전에서 40대의 노처녀를 우연히 만나 하룻밤 잤는데 그 여자가 내 매력은 짐승 같은 참이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우조교의 일에 대해서는 '신정후 교수가 명칭해서 그렇다. 우조교는 신정후 교수와 호텔 가서 자고 싶은데 신정후 교수가 그렇게 안하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소송한 것이다. 호텔 가서 같이 잤으면 소송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천만원? 나 같으면 그 돈주고 호텔에 데리고 가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배의 진술서-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수님과 실험실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유난히 야한 이야기를 하였고 신입생인 저는 우리들이 교수님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세미나 시간에 그 전날 저녁에 만난 여자와 함께 대전까지 따라갔다 왔다는니 그 여자가 교수님더러 짐승같은 남자여서 좋다고 했다는니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OO 선배의 답변-

교수님은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하셨고, 가끔 손을 잡으려 하셨다.(실제로 잡힌 적도 몇 번 있었다.) 특히 실험실에 관해 Discussion을 하기 위해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 실험이야기를 하다 말고 남녀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며칠씩 끈덕지게 데이트하자고 조른 적도 있었다.

위에서 어느정도 서술을 했다고 보이는데... 구교수님은 학생을 결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참을성도 없었으며 수시로 폭언을 퍼부으며 화를 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 자신은 마치 이 세상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나중에는 (93년 후반부 경부터 확연히) 여학생들을 교수님의 성적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다.

<공개질의서 질문 : 구교수님께서 평소 대화 중에 성적인 표현을 자주 하셨다는 데..... 기억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교수님의 언행에 대한 선배님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졸업사은회 때 모든 이야기를 성으로 귀결시키는 것 같은 대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아침 세미나 시간에 그 전날 만난 여자와 함께 대전을 내려갔다 왔는데 그 여자가 교수님이 짐승 같아서 좋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강OO 선배의 답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다. 원래 말씀을 여과없이 마구 하시는 분이시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OO 선배의 답변-

주로 술자리, 그리고 교수님 방에서 교수님과 같이 Discussion할 때, 어쩌다가 여학생 한두명과 교수님이 함께 있게 된 경우 등에 그런 표현이 잦았다. 의례 그러려니하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려, 3년이나 지난 지금은 잘 기억할 수 없으나 신교수가 우조교를 데리고 호텔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조교가 복수를 하는 것이라든지(정선배 1차 진정서에서도 서술된 내용), 교수와 학생은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하는데 남자/여자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려면 침대에서 발가벗고 뒹굴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은 기억이 난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배의 답변-

'여자와 남자가 sex를 할 때 여자가 기뻐 해줘야 남자도 기분이 좋다. 나는 어떤 여자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

그리서할 2/ 정OO선배의 실험 메모

-구교수의 3월 18,19일자 답변서-

(1차답변서 이어서) 본인은 그 후 여러차례 박사과정을 그만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정OO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개발을 위해서도 다른 쪽으로 전로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이는 정OO이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연구를 꾸려 나가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정OO자신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게 강하여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잘못된 실험을 논리적으로 추적하여 고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본인의 지도를 받아들이기 보다 자기변명에 급급하여 자기 스스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딱하여 박사과정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년 2-3 차례씩 이야기 하였습니다. 항상 본인의 이야기에 '그런데요---' '아~런데요---'하고 변명하는 버릇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보다는 반박하고도 잘못에 대하여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부족하여 그렇게 긴 시간에도 이윤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할 과목을 정하여 두고 있는데 정OO은 이 과목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수강을 하지 않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 여파는 지난 6년간 모든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였고 정OO 자신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본인은 실력이 없는 정OO이가 실력을 키우고 논문을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93년에서 95년까지 2년간 매일 아침 8시에 대학원 학생들이 등교하게 하여 아침마다 학술연구논문발표를 시키고 토론하고 하였으나 정OO은 학교에 가까운데 살면서도 매일 지각하여 발표할 논문 서두를 못들어서 정OO 본인이 스스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여 박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시간내에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중략]--- 본인은 정OO이가 학위논문을 어떻게든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본인은 95년도 7월부터 도서관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된 실험절차를 모두 조사하여 컴퓨터에 모두 정리하여 입력시키고 60페이지에 달하는 실험과정과 원리를 인쇄하여서 95년 10월경에 정OO에게 그리고 실험실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OO에게 이 실험과정 중에 몇 가지 일을 완성시켜 학위논문을 끝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실험준비하고 1월경에 일을 시작하더니만 7월이 되도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다시 불러서 '너 어떻게 되었니 왜 실험결과를 나한테 보고하지 않니' 그리고 '학위논문은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습

니다. 그것도 본인이 극도로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대답을 거부하여서 야단을 치면서 실험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실험노트를 내놓고 실험결과를 못 얻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다그치니 실험을 여러번 하었는데 결과가 기대한대로 안나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실험결과를 한번 쳐다보니까 자외선 흡광정도를 측정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0.05-0.7사이엔 값만 유의성이 있는데 정OO의 자료는 모두 1.2-2.0사이로 전혀 유의성이 없는 영역에서 자료를 얻어 그래프를 그리니까 기대한대로 결과를 못얻고 있었습니다.

(2차답변서 기재지)본인은 정OO이를 일찍이 본인의 실험실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학생이 연구를 할 수 행하지 못하여도 학생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지도교수는 일방적으로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었고 수년전부터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정OO의 사고 방식과 성에 대한 병적인 자세, 그리고 병적인 질투 감정을 볼 때 마다 짐작되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실험실은 국내에서 어느 교수 실험실 보다 장비가 많고 연구시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도 현재는 매우 초라한 연구실이 되어 버린 것은 정OO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이고 평소에도 지난 6-7년간 정OO에게 너 때문에 우리 실험실이 망해간다고 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배의 답변-

(정선배의 실험실 생활에 대한 질문에서) 7년동안, 방학때 1주일 정도 휴가를 가지는 것외에는 매일 실험실에 나와 열심히 실험하였고, 실험에 필요하면 휴일에도 나와 열심히 실험하였고, 후배들과 또 다른 대학원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선배님이 중요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실험능력향상에 결정적 장애가 되었다는 구교수의 주장에 대하여)화학과 과목은 수강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수강하였다.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석사때는 화학과 서정환 교수님의 '물리유기화학' 학부과목을 지정하여 들으라고 했지만 박사때는 지정된 과목은 없었다.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석사/박사때 수강하라는 과목을 모두 수강하였다.

-이## 선배의 진술서-

9개월의 실험실생활동안에 제가 지켜본 정OO언니는 자기 실험에 열심히고 교수님일과 실험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가장 선배로서 실험실을 대표하여 혼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OO언니에게 프로젝트들을 자주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겠다느니 일을 잘한다느니 하시면서 온갖 칭찬을 하시고는 프로젝트만 제출하고 나면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히셨습니다. 제가 실험실을 나올 즈음에는 정OO언니에게 실험만 된다고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야 졸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실험실내에서 인간관계는 다 좋게 지내는 사이였고 학문적 능력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언급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항상 열심히 실험하시고 제가 나올 즈음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졸업을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OO 언니는 실험실 생활을 성실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침 세미나 시간에도 늦으시는 일이 없었고 그 외의 다른 일들도 꽤 열심히 하셨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강OO 선배의 답변-

이주 의지가 굳으며 성격이 곧고 대관 분이다.

실험실에서는 최고참으로 역할을 충분히 다 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실험실 생활을 하였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OO 선배의 답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선배는 매사에 확실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내가 실험실에 있었던 때에도 정선배는 실험실의 가장 선배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배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곤 했었다. 학문적 능력이야 내가 뭐라 말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에 들어왔다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같이 생활하면서 정선배가 무능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김OO 선배의 전화통화-

정선배가 학교를 늦게 나왔던 것은 아니다. 정선배가 고집이 세고 자신의 의견을 잘 굽히지 않아서 교수님과 많이 부딪혔다. 내가 본 선배는 불성실하지 않았다.

박사과정에 90년도에 입학했는데 교수님은 내가 집념이 강하다고 칭찬하였다. 항생물질 실험도 잘 되었고 여러 제 약회사 직원들을 연수시키는 등의 일을 잘 수행하였으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NIH에 1년 기한으로 떠나기 전에는 대학원생들에게 '정OO이 내가 없으면 내 대신이다. 모든 권한을 줄테니 실험실을 잘 이끌라고 하였다. 야단칠 때 심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악의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대학원생 누구에게나 심하게 말을 하고 야단쳤다. 재직다니온 후 유독 나에게 심한 말을 많이 했고 내 잘못이 아닌 일도 나에게 야단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배의 답변-

학기초(95년 3월) 교수님과 정선배가 사이가 안 좋다고 느꼈는데, 교수님이 정OO언니에게 감정적으로 나쁘게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정OO언니에게 교수님일을 부탁할 때는 일을 잘 한다느니 졸업을 해야겠다느니 하는 칭찬을 하시다가도 그 일만 끝나면 다시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교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고 어떻게 교수님이 저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OO 선배의 전화통화 상의 답변-

교수는 정선배에게 연구가 있을 때는 잘해주고 끝나면 인격적으로 모독스럽게 했다. 모두에게 있어서 교수님은 이기적이고 필요할 땐 잘한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OO 선배의 답변-

(오OO 선배가 실험실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실험실 생활은 한마디로 내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대학원생이 되기 이전에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폭언과 인격모독의 극언을 교수님으로부터 수시로 들어야 했고 그 모든 걸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내해내야 했다. 당시에는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으나 실험실을 그만둔 지 금은 회상조차하고 싶지 않다. 실험실을 그만둔 이후에도 교수님이 등장하는 악몽을 자주 꾸곤 했다. 실험실을 그만둔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난 아직도 가끔 고통스러운 꿈을 꾸곤 한다. 나보다 먼저 휴학을 한 선배언니가 있는데, 휴학 후 1년쯤 지난 다음에도 실험실에서의 정신적인 고통이 되살아나 가끔씩 소스라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이젠 나 역시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실험실 생활이 고통스럽고 내게 많은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게 내 휴학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내가 실험실을 그만둔 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후의 내 인생진로와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온 어려운 결단이었다. 다만, 내가 겪었던 교수님의 언행이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을 다소 수월하게 해주었다고나 할까. 만일 지도교수님이 좀더 존경할만한 분이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었다면,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쉽게 학교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구교수와 정선배의 관계에 대해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교수님은 정OO언니에 대해 다소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다. 실험실의 최고참(반장격)이어서 그랬는지 정선배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고 강한 친밀감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때론 무척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며 가혹하게 대하시기도 했다. 물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태도의 기복이 심했으나 정OO언니에겐 유독 그 폭이 컸고, 정도가 심했다. 정OO언니는 옆에서 보기에 대단하다할 만큼 교수님의 언행을 잘 감내해냈고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강OO 선배의 답변-

93년 제가 실험실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는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때문인지 일방적으로 구교수님이 정선배를 구박하였다. 마산 사건이 어떤 관계변화를 일으켰는지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지속적으로 구교수님이 정선배를 구박한 것 같다.

93,94년에는 미국에서 오신 직후라 열의가 대단해서 세미나등으로 Hard training을 많이 시켜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고함도 자주 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95년 이후엔 그나마 실험실 생활이 편했던 것 같다.

교수님이 좀 극단적인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지내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떨때는 아주 인간적이고 소탈하시기도 하다.

그림사양 4/ 악의론 심사서로 제출과정

-진정서-

실험실의 중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신청서나 보고서를 쓰도록 제게 시킬 때면 실험실 사람들 모두에게 "정OO씨 이번 학기에 졸업하니까 많이 도와줘라."고 하다가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제를 실험도 못하고 교수에게 정도 없고...라며 2년3년

이 지나도 졸업하기 어렵다고 육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기가 지나 정말 3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OO씨 졸업해"라고 실험실에서 저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은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한다고 확신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 주변 사람들은 많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심사제출서류를 내는 날, 교수님께 서류를 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 줬다. 미워서 조교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 줬다. 직장이 생겨도 다 해방 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 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느닷없는 교수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3년전 마산 호텔 방에서 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적의 개인 물품과 논문을 더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실험노트와 스펙트럼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의 3월18일 답변서-

96년도에도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면 학위논문을 잘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는 학교에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인과 의논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학교는 그 학생의 학위논문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건만 학위논문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학위신청자 접수 마지막 날에 학위논문도 없이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오는 토요일이 학위논문 심사신청 마지막 날인데 학위논문이 어디 있다고 물으니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학위논문 준비없이 어떻게 학위를 받는가 하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정OO이가 월요일까지 학위논문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체제도 안 갖춘 논문을 내 놓아서 한 학기동안 학위논문도 정리하고 마지막 일을 정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정OO은 본인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고 2~3주 후에 실험실을 조사하니 모든 것을 어디다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에게 연락하라고 하니 연락이 안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소비하여 대구의 집 전화를 찾아내어 학교 물건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학교에 속하는 본인이 사용하던 기물, 실험노트, 실험자료는 학교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선평의 답변-

95년 10월 박사학위 논문심사 서류를 내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라고 할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6년 4월에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났다. 교수님이 졸업시킬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교수님께 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교수의 말은 무엇이던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졸업못한다고 했다.

(논문심사제출을 못하고 집에 내려갔던 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교수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학위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학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며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할지를 고민하였다. 결국 부모님께서 마산호텔사건을 아시게 되었고, 학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실을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겠다고 결심하였다.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은 후부터 교수를 찾아볼 때까지 선평님의 상황과 교수와의 9번 면담 상황에 대해) 불교회관에서 기도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기록해두었다. 대화를 하여 사제간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무시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 '너를 졸업시키면 내가 비참해진다.' '너에게 박사학위 안 주는데 내 인생을 걸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박사학위 안준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방의 의자를 차고 나를 먹살잡아 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이## 선평의 답변-

처음에는 "실험이 안되는데 어떻게 졸업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실험실을 그만 둘 즈음에는(95년 10월경) "실험만 된다고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총장님에게 보내는 진정서」

- 약대 구교수의 고소가 있기까지... (1)

이번 사건은 3/11일 이 진정서가 총장님에게 제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정서는 사건의 전모를 적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학교에 알려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번 자보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공대위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정선배 측에서 총장님에게 보낸 진정서를 공개하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 공개와 함께 '약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은 진정서 中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입니다.

진 정 서

(중략)

1994년 4월, 교수님께서서는 다음 학기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지금 실험 중인 식물을 더 채집해서 생리활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수님 동생이 농사를 지으시는 마산 근교의 동생 집으로 채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과 둘이서 채집을 간다는 것이 싫어서 후배들 중 한 명을 동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짜증을 내시면서 "각자 자기 실험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실험을 멈추고 채집을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실험에 필요한 것이니까 너와 내가 가면 되지. 동생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찍부터 하루종일 채집해서 곧바로 서울로 올라오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교수님과 둘이서만 채집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후배 두명과 교수님이 채집을 다녀왔는데 후배들이 웬지 대단히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지 물어 봤더니 채집 다니는 기간동안 교수님께서는 밤마다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 후배가 화장을 하고 있고 한 후배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누워 있는 후배 옆에 눕더니 끌어안으려고 해서 누워 있던 후배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겁이 나서 교수님께 "지난번처럼 교수님 동생 분이 채집을 해서 보내주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내 동생이 너 식물 채집해 주는 사람이나? 다음 학기에 박사학위 받기 싫으면 채집 안하면 된다. 누가 해주기를 천년만년 기다려 봐라. 실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험하는 식물 모양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교수님 동생 댁에서 자고 다음날 채집을 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온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채집만 하면 식물은 교수님 차에 실어 놓고 대구 부모님 댁에서 자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채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수님 부모님과 동생 댁에서 잔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28일, 채집을 하기 위해 교수님 동생이 사시는 마산 근교의 시골로 출발하였습니다. 채집한 식물을 싣고 와서 곧바로 말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면서 교수님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교수님은 계속 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화제를 돌리려고 소설 내용도 이야기하고 실험실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Sexual ..."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왜 교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항상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흐르는 지 모르겠어요. 관심사가 그것밖에 없나 봐요. 정말 세대 차 느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했더니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비롯해 몸을 군데군데 꼬집고 가슴을 만지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왔지? 나랑 같이 여행가면 얇게 입고 와야지. 멋대가리가 없어서 ..."라며 화를 냈습니다. 좁은 차안에서 교수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팔방을 끼고 휴게소에서 산음료수가 든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 좀 잡아 보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억지로 힘을 써서 잡았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나 있다고 "너는 참 좋은 여자다. 흥분했다는 증거다. 미국에서는 남녀가 만나면 상대방에게 '몸이 뜨거워졌니?' 라고 남자가 물어서 여자가 '뜨거워졌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sex하러 가자.' 라고 하고 sex하러 간다." 고 말했습니다. 사실 손에 땀이 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구를 지나 마산으로 가는 구마고속도로에서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교수는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너랑 같이 와서 운전할 조심해서 그런 것 같다" 고 했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으므로 교

수님 동생 때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 데에서 자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대구에서 잤다고 애들에게 말해라” 고 했습니다. 얼마 가다가 “너 오늘 어디서 잘 거냐?” 고 물어서 “교수님 동생 데에서 자는 것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미쳤나? 오늘 너 내 품에서 자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와도 불편해서 밖에서 자는데 ...” 라고 말해서 “밖에서 자도 방을 2개 얻어야죠 어떻게 둘이 자요 부녀자간에도 딸이 성장하면 아버지와 한방에서 자지 않는 법인데 ...” 강경하게 말했더니 “미친년, 애들에게는 내 동생 집에서 잤다고 해라” 고 했습니다. 또, 하루종일 채집하면 식물을 얼마나 채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식물 채집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나 보면 되지. 무엇보다 우리 둘이 정을 나뉘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경 마산에 도착하여 교수님은 호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저에게 차에 있으라고 하면서 방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방이 있는 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좀 지나서 방이 있다고 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 교수님 손에 열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8층에 내려 “제 방은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네 방이 어딴지? 일단 들어와 봐라” 라며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교수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농담하지 말고 제 방 열쇠부터 주세요. 짐도 내려놓고 씻고 자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채집을 하죠” 라고 했더니 “농담이 아니다. 일부러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달라고 했다. 씻으려면 화장실 문 잠그고 씻어라. 아니면 내가 씻겨 줄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 “그럼 다시 방을 하나 더 얻겠다” 며 가방을 메고 나서니까 문쪽으로 가서 도어 위의 문고리를 잠그려고 했습니다. 저는 교수 팔을 잡고 죽을힘을 다하여 문고리 잠그려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문고리가 잘 잠기는 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며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독종 같은 년, 내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냐? 너는 네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지 내 생각은 조금도 안하는 이기적인 년이다” 며 마구 화를 내더니 갑자기 저의 곁으로 다가와 뺨을 때리며 팔을 비틀고 침대로 밀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내게 죽음과 같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교수를 깨물고 발버둥을 치며 죽기로 항거하자 교수가 잠시 주춤하고 저는 제빨리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교수가 쫓아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한 말은 ‘방을 하나 더 얻든지 교수님께서 나오시면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갇혀서 2시간 동안 교수는 제게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욕설들이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것은 발가벗겨 놔도 아무도 안 건드릴 거다. 얼굴도 엉망이고 몸매도 엉망이다. 네가 여자로서 매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쌍년, 미친년. 지난 번 피자 먹고 나서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그냥 집에 간다고 해서 속으로 쌍년이 라고 욕을 했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 너가 내 발가락을 빨 정도로 종이 안되면 1998년 2월이 되어도 박사학위를 줄 줄 아느냐? 너는 우조교보다 더 악종이다. 그렇게 멧대가리가 없으니까 시집을 못갔지. 너는 선천적으로 악한 년이다. 너는 내게 정이 있어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준 적이 있느냐?” 고 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더 이상 제게 덤벼들지 않고 욕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넋을 잃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조교 사건으로 교내가 한창 시끄러운 때여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아 우조교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마을 호 타고 서울 가라며 이 만원을 주고 학교를 그만두라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학위를 받아도 따라다니며 취직을 해방놓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나갔습니다. 실험실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다가 (4월 28일 일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나 나오고 실험실 후배들에게는 식물이 아직 안 자라서 채집을 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나가자 저는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지만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도 조그만 소리가 나면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가 잘 잠겼는지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창문으로 달려가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날이 빨리 밝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멈춘 듯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반 사무실에서 커피나 나르고 상사들에게 희롱이나 당하는 힘없는 여성의 모습이 아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있는 여성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스승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대구 부모님에게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 지를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를 곱게 키워 오신 부모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박사 과정 공부시키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께서 딸이 이런 끔찍한 취급을 받고 있으리라고 어디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다음날 실험실에 나갔습니다. 후배들은 저 혼자, 채집도 하지 않고 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저는 후배들에게 제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수님 부인과 딸들이 모두 미국으로 완전히 떠나고 1년 정도 되는 때였고 교수님은 온통 성에 대한 얘기였으므로 교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35살 전에 결혼을 안하더라도 아이는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30살 전에 부모 집에서 나와 혼자 살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야 된다. 그러다가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면 된다. 아이만 생기면 된다.' 고 했고 욕을 잘해서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욕 잘하는 남자가 정력이 좋다. 어제 대전에서 40대의 노처녀를 우연히 만나 하룻밤 잤는데 그 여자가 내 매력은 짐승 같은 짐이라고 하더라' 고 했습니다. 우조교의 일에 대해서는 '신정휴 교수가 명칭해서 그렇다. 우조교는 신정휴 교수와 호텔 가서 자고 싶은데 신정휴 교수가 그렇게 안하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소송한 것이다. 호텔가서 같이 잤으면 소송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천만원? 나 같으면 그 돈주고 호텔에 데리고 가서 자겠다' 고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교수님은 저를 괴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산에서의 일에 대해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자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교수님께서는 간섭을 안하니까 되는 것이 없으면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악한 마녀' 라는 등 '천성이 악하다'는 등 많은 욕을 했습니다. 교수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수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괜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의 중요한 연구 과제에 대한 신청서나 보고서를 쓰도록 제게 시킬 때면 실험실 사람들 모두에게 "정○ 씨 이번 학기에 졸업하니까 많이 도와줘라." 고 하다가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저를 실험도 못하고 교수에게 정도 없고 ... 라며 2년, 3년이 지나도 졸업하기 어렵다고 욕했습니다. 그렇게 매 학기가 지나 정말 3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 씨 졸업해" 라고 실험실에서 저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은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한다고 확신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 주변 사람들은 많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 심사제출서류를 내는 날, 교수님께 서류를 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 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 줬다. 미워서 조교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 줬다. 직장이 생겨도 다 횡방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 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느닷없는 교수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3년 전 마산 호텔 방에서 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저의 개인 물품과 논문을 더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실험 노트와 스펙트럼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몸이 몹시 아팠고 의사 선생남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병이니 당분간 아무것도 생각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일주일 동안 실험실에 나가지 않고 대구 부모님 댁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간사이 교수님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다짜고짜 '당신 딸이 실험실 물건을 다 들고 나갔다. 도둑 년이니 고소하겠다' 고 말하는 바람에 부모님들은 매우 놀라 저를 다그치셨고 저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단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험실에 나가 실험을 해 왔던 저는 충격과 상실감, 허탈감에 한동안 병치레를 해야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성실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호텔 방에서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3년전에 박사학위를 받았겠지만 제 자신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19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구양모 교수를 찾아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잃어버린 사제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제의했지만 구양모 교수는 '나는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한다. 너를 졸업시키면 내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졸업시킬 수 없다. 너는 아직도 더 비참해지고 절망해야 한다' 며 저를 실험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난 3년간 실험실의 제일 윗 선배로서 후배들, 특히 여자 후배들에게 늘 미안하였습니다. 마산 호텔 방에서의 일 이후, 교수는 저를 괴하는 대신 대학원 신입생 여자 후배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 후배는 실험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교수님과 청계천에 자주 가야했는데 하루는 교수가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자고 졸라서 다방엘 갔는데

데 교수가 손 한 번 잡아보자고 하는 바람에 놀라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배는 '토요일 오후 시골 부모님 댁에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가는데 교수가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며 억지로 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터미널로 안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친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터미널로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학생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한다면서 전주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고 했더니 마구 화를 내면서 아무데나 내려줬어요. 거의 수원까지 갔다가 되돌아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교수님이 우리 둘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교수님과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빈 택시도 없고 방향이 달라 합승을 할 수도 없었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안 간다고 버티다가 교수가 억지로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옷은 모두 벗은 채 파자마만 입고 나와 껴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교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 후배는 '마누라가 없으니까 일요일날 자기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 좀 하라면서 교수님이 자기 집 전화번호와 약도를 그려줬어요. 날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험실의 제일 윗 선배고 같은 여자인 만큼 당황한 후배들이 제게 고통을 털어놓을 때면 '교수님과 원만하게 지내도록 노력하되 교수님이 너희에게 부당한 성적인 요구를 할 여지를 주지 마라' 고 조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미리 말씀드려 교수의 행동을 막지 않음으로써 제가 후배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결국 매년 2-3명의 박사과정 혹은 석사과정의 후배들이 학위를 포기하고 실험실을 떠났습니다.

(후략)

1997.3.11

공대위에서는 이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구교수는 정선배와 피해를 입은 다른 지도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본부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하며, 구교수를 퇴진시켜야 한다!
3. 구교수와 본부는 정선배와 다른 지도학생(피해자들)의 경우 기간에 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이후에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 사회 내에서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4.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부는 학내 성폭력 문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학생과 교수, 교직원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의 추측 기사

4/23자 한겨레 사회면에는 “‘교수가 성희롱’ 첫 형사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정반대로 오보였다. 이에 정선배(피해자)와 학생회에서는 한겨레 측에 정정보도와 공식사과를 요청했고, 4/25자 신문에 정정보도 되었다.

구교수의 고소

구교수는 정선배의 아버님과 정선배를 비롯하여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다른 3인의 지도학생들(총 5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정선배의 경우는 여기에 공영서류무효죄의 혐의를 더해 형사 고소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의 유재만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조사중이며 약대 교수님들의 진상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고소와 관련하여 공대위에서는 일단 검찰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구교수가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조사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제출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94년 4월 28일 실험을 위한 채집을 하기 위하여 교수님과 마산 근교의 시골로 가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으며,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 옆구리 등을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마산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구교수는 동생 댁에서 잘 것이라는 출발할 때의 이야기와는 달리 호텔에서 묵자고 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은 방을 한 개만 얻었고, 정선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끌고 가서는 성추행을 시도하여 정선배는 결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리고 구교수는 정선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정선배는 이런 사건을 겪고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이후에 어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95년 10월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라고 할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6년 4월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났다.

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씨 졸업해”라고 이야기하고 정선배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줬다. 미워서 조교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줬다. 직장이 생겨도 다 해방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라고 하며 논문제출 심사를 거부하자, 정선배는 참담함속에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대구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정선배가 실험노트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집에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일단 사제간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 정선배는 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교수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정선배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신과 피해를 받은 다른 지도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을 지도 모르는 후배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총장님에게 대학사회 내에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3/11일 제출하였다.

진정서 제출 이후의 경과

약대 학부 비대위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였고, 비상총회를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입장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구교수가 말고 있는 실험을 ‘구교수의 공개사과와 퇴진, 고소 귀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구교수는 공개사과와 사퇴, 본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구교수를 퇴진시키고, 정선배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 기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약대 대학원에서는 각 실험실 박사과정 대표자가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약대 교수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교

약대 교수님들은 교수의 정계에 대한 권한은 본부에 있고, 약대에서는 학사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사위원회에서 정선배와 다른 2인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였고, 행정적으로 논문제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위심사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학과장과 제약학과장 2인을 실무자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 작업을 하였다. 5/2일(금) 교수회의에서는 3학년 실험 거부에 대하여 담당 교수를 바꾸는 문제를,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이후 본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한더도 입장을 전할었다.

공동내색위원회 구성

중학생회, 대학원사서회, 관악역공포집언제가 그 10년만에 10월 1일의 쏘구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라는 문제가 겹쳐 있어 이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기변우' 행외의 어

자 상충력이 소강을 주위에 있는 구조적인 관계를 지어고 쓰여진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지어고 쓰는 법이다.

아래의 글을 읽고 답하시오.

중대위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 전력의 분포, 소모, 배치

1. 구교수는 정선배와 피해를 입은 다른 지도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공식사과해야 한다!
2. 본부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구교수를 퇴진시켜야 한다!
3. 정선배와 다른 지도학생들(피해자들)의 경우 기간에 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사회 내에서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4.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부는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래와는 이후에 이더는 집중을 가지고 작은 예술과 논문과 책을 여러 개를 낸 것 같다.

구교수님의 고소로 인해 공대위에서는 이제 진실을 알려 나가고, 대학사회내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리려고 한다. 이후에 진정서와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더이상 진리의 상이탑이라는 대학에서조차 공허한 도덕과 윤리만을 내세워 성품력 문제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성품력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대 공동대책위원회

통이대 회회과 교수 싱폭력 시간

제 목 : 교수에 의한 학내 성폭력! 박준원교수를 말한다!!

<학생회로 날아온 익명의 편지 헌팅!>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농활을 준비하던 기간에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회화와 박준원 교수로부터 여러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회화와 학생이며 박준원교수가 자신에게 시험지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비정상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그 학생은 그 말을 믿고 교수의 요구에 응하게 되며, 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은 후 교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교수는 학생의 집앞에까지 와서 전화로 불러내며 또다시 성적적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안 박준원 교수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자신은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편지를 받고 총여학생회는 심각한 학내 성폭력 문제라고 판단하고 학교행정과논의를 하였고 행정에서는 피해자가 나타나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교수는 더이상 교단에 설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피해자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편지를 보낸 피해자를 한달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 >

11월 10일 경 총여학생회로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내용은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이며 박준원교수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편지의 내용과는 달리 당시 회화과 시간강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박준원 교수로부터 "나만 믿으면 교수될 수 있다. 사랑한다. 이쁘다."는 등에 속아 박준원교수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뒤 피해자, 박준원교수, 예술대학장님, 총여학생회장, 학생처장님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박준원교수는 자신은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는 회화과내에서 박준원교수 성추문에 대한 여러가지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회화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학년들 중심으로 박준원교수와 관련한 성추문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교수의 연구실에 리포트를 제출하려 갔다가 교수가 한 여학생의 몸을 더듬고 있다는 등의 실례가 많이 취함되었습니다.

박준원교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이 설문조사 내용까지도 조작이라고 이야기 하며 계속 자신의 성폭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은 이런 입장입니다>

편지를 받아본 뒤부터 계속적으로 학교행정과 만나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피해자만 나타난다면 당연히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야한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증거를 요구하였고, 이제는 이 사건의 해결을 학교의 명예훼손, 입시철 등의 이유를 들며 즉각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와 회화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외에 또다른 어떠한 정확한 증거를 다시 제시하라는 것인지를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명예가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학

< 1만 8천 학우 여러분!! >

자주의 시대를 개척하는 빛나는 청춘 14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

<<성폭력사실, 공식적으로는 부인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정>>

이로써 박준원 교수는 자기가 먼저 그러한 사실들을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말함으로써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박준원교수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적이 없으며 자기를 포함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말을 전화상으로 전했습니다.

12월 10일 - ○○○ 교수님이 전화를 해 박준원교수와 피해자 셋이 만나서 사과의 말을 듣자고 함. 피해자가 총여학생회도 함께 가겠다는 말을 하자 공식적 조직인 총여학생회와는 만날수 없다고 이야기 함.

예술대 *** 교수님 - 박준원 교수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몇번이나 박준원교수에게 주의 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처음 박준원 교수를 고발한 의도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고 박준원교수가 한일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를 바랬으나 박준원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부인하고 인정하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위사실을 전화를 통해 전해듣고 귀국하여 총여학생회와의 계속적인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과의 수차례 면담과정에서 박준원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부정하고 오히려 이상한 소문만 퍼뜨린다는 것을 알았고 박준원교수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상태에서 잠시 귀국했던중 대학원 선배인 박준원 교수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 박준원교수는 외국의 박사학위는 필요없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것이 훨씬 교수되기 쉽다며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말로 장래를 보장하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말을 믿고 '모든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박준원교수로부터 시간강의를 받으며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박준원 교수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학우들과 피해자앞에 공개 사과 하라!
2. 박준원 교수는 학내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조속히 자진 사퇴하라!!!
3. 행정에선느 학내 성폭력 규제 학책 제정을 마련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라!!!

THE UNIVERSITY OF CHICAGO

COL 641112

1, 2차 자료가 기말고사 기간에 나왔습니다. 1차 자료로 사건을 개괄적으로 알려내었고 2차의 내용은 박준원교수에 대한 다른 교수님들의 증언, 박준원 교수가 비밀리에 그것도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만나자고 했던 점과 행정에서 그냥 덮어두려는 태도등등이었습니다. 대학우 선전이 진행되자 박준원교수는 회화과 학생들을 시켜 자료를 매개하고 총여학생회로 항의전화와 항의방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사실들을 회화

<< 학내 성폭력이 명백합니다. >>

((박준원 교수 퇴진과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 !!!))

자주의 시대를 개척하는 빛나는 청춘! 14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준/위

(박준원교수성폭력사건)부산여성단체 입장!!

부산지역의 사학을 주도하고 있는 귀교의 눈부신 활동에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부산여성단체들은 이번 동아대 박준원 교수의 박진숙 시간강사에 대한 성추행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지역에서는 얼마전 모교수가 유학을 미끼로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성폭력상담기관의 상당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사건이 그러하듯이 가해자가 교수이기에 피해당사자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대학내 성폭력의 문제는 묻혀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은폐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박준원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박진숙씨의 경우에도 교수가 되기 위한 꿈과 학문의 열정으로 시간강사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 인생에서 돌이킬수 없는 나락의 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는 꿈과 교수의 부당한 요구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가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던 말입니까?

교수와 시간강사,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어른과 아이의 관계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했을때 아이에게 왜 응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교수와 학생, 교수와 시간강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성폭력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박진숙씨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동안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박진숙씨의 제기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박준원교수는 과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교수임이 확실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을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박준원 교수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규제하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어렵게 말문을 열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멀리 프랑스에서 귀국한 박진숙씨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시 한번 총장님께 사건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은 물론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그렇게 파렴치하고 성의식이 왜곡된 사람이 교수의 자리에 있다면 누가 교수를 꿈꾸고 학문을 탐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여성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박준원 교수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우리 여성단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부 / 산 / 여 / 성 / 단 / 체 / 연 / 합 / 준 / 비 / 위

(부산보육교사회, 부산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 전화, 부산여성회)

박주원 교수 퇴진과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

그간에 박준원 교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거치며 총여학생회에서는 조속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학내 문제의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행정은 사건의 정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어 두려하고 교수님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 사건을 행정에게 맡기고 이 일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행정의 작태는 우리 학우들의 대표채인 학생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학원의 주인은 학우들이고 당연히 학내에서 벌어진 교수와 시간 강사간의 성폭력 사건인 만큼 학생회는 이 일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박준원 교수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은 행정도 교수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학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공공연한 성폭력같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며, 박준원 교수에게 우리의 후배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우리 학교에는 학생 교직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리학교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은 신고제임) 명백히 성적인 물의를 일으킨 교수가 우리학교 교수임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는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측의 주장에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여 유명무실한 규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보다는 무마하려는 입장으로 일관한 학교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

한편 A씨는 이미 B씨의 고소로 지난 1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상태며 금명간 B교수를 강간 미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 사제간의 부끄러운 맞고소전은 지루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19970502 31면(사회) 뉴스 1198자

1. 학기들여 각 대학에서 선불려, 선추행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등 성범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학들

지난달 동아대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학칙을 마련한데 이어 서울대도 2학기부터 같은 내용의 학칙개정과 함께 성폭력진상 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하는 등 일부 대학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2~3월에 한 남학생이 고속버스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고 고백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한 여학생은 컴퓨터 통신 학과계시판을 통해 하숙집에서 1년 선배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는 등 성범죄 3건이 잇달았다. 또 3월 말에는 한 단과대 게시판에 박사과정 여학생이 지도교수 K씨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측은 이 교수가 지난달 21일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말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해 2학기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진상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2월말 K대에서는 한 교수가 대학원 입학예정인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뒤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는 대자보가 나붙고 교소까지 갔다가 결국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학원신문이 이 사건을 또 문제삼고 나오자 학교측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며 신문을 전량 수거했다.

캠퍼스 성폭력 위험수위!

그러나 법원은 「60~70%의 강제적 불륜관계가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고 반항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그러나 고소인도 무고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해 여성의 거부 의사도 분명했음에도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좀체 표출하기 어려운 「강한 저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4월 결국 학교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전남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나마 학교측이 가해자인 교수를 해임,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다. 당시 이 대학 약학대의 모교수는 면담하러 온 여학생들에게 저녁과 술을 사준 뒤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 강제로 꺾이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교수가 집으로 오라는데, 학생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학교측은 지난 3월, 교

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했다.

그러나 같은 국립대학임에도 서울대는, 「우조교 사건」의 장본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S교수에게 징계 조치만을 내려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우조교 사건 이후 잇따라 성폭력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지난해에는 약학대 교수의 대학원 여학생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도 남학생에 의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측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자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이수경씨(재료공학부·3)는 「단일 사건에 대한 처벌 중심의 문제 해결은 일회적인 수밖에 없다」면서 「학내의 성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보다 재교육프로그램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사건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여학생들을 배제한 채 학교측의 일방적인 조치만 취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경기지역 17개 대학 여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꾸려져 이른바 「성폭력근절 학칙제정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법률상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개념 대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에 기반한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폭력행위」를 성폭력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예방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상담과 성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성폭력 전문상담실 상설화 등의 내용이 학칙에 포함돼야 하며, 이 학칙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성폭력의 심각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학칙제정에는 소극적이다. 다만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에서는 다소나마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대의 경우 일련의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당국이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의 필요성을 인정, 학생들의 초안과 학교측의 초안을 절충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규정을 마련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학내지원팀 정유석 위기센터부장은 「현재 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의 성과가 더딘 것은 학생들의 여건상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원인이 있다」며 「대학의 성폭력문제는 사실상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대학만의 문제로 남겨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상담소는 오는 12월경 대학내 성폭력사건 지원체계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폭력] 여대생 성폭력 사회문제 비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지도교수의 여대생 성폭력 문제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는 등 지역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초 당진 신성대학에 재학중인 A(24)양이 지난해 4월부터 지도교수인 B(40)씨에게 교수연구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강간협의로 고소하면서부터.

충남 성폭력상담소(소장 이화연)와 원안여성의 전화(대표 김순영)는 지난 18일 검찰을 방문, 정확한 진상조사에 이은 사건
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달중 시민·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 구성을 준비중이다.

또 당진 참여연대(회장 이재만)도 성명서를 통해 “교수연구실과 학생회관 등 학내에서 이같은 과립치한 행위가 벌어진 데 대해 학교측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 및 당진군민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고 △대학측의 재발방지 약속 △전철의 해당교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신성대학 학생들도 최근 학생회관 등지에 붙인 대자보에서 “교수가 학점 등을 미끼로 여학생을 성노리개로 만든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학내 문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진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떠나 교수가 학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 처벌과 진상규명 요구를 군민과 함께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조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나 친고죄 신고기간(6개월) 등의 문제로 혐의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수의 부인 또한 지난달 남편과 여학생을 간통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일본] 성폭력교수에 750만엔 지급판결

일본에서 선풍력 교수에 대해 최고액인 750만엔(한화 약 7500만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샌다이 지법은 24일 전 도호쿠 대학원생인 K씨가 이 대학 조교수 A(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상 지배 종속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성폭력행위를 인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료 지급토록 판결했다.

20대 여성인 K씨는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인 95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 논문지도와 심사를 담당한 A교수가 논문을 지도하는 동안 자신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면서 “연애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폭행을 계속했다고 주장,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K씨는 또 A교수가 자신을 호텔로 끌고가 성적관계를 강요하는가 하면 요구를 거절할 경우 논문을 다시 쓰도록 명령하거나 끈질기게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의 행동은 K씨가 논문지도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강력히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불
법행위로, K씨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서 "이는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악질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 의사에 의한 연애편제”라는 A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성적관계나 접촉이 있었던 사례 중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주로 가해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성폭력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지금까지는 300만엔이 최고였다.

[창원]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기소

창원지검 제1형사부 이두희 검사는 10일제자들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창원대 S교수(4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3월 창원시내 모술집에서 함께 자리한 제자 K씨(21) 등이 대학 재학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 연구실 등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S교수는 이같은 사실이 피해 여학생들로부터 폭로되자 교육부로부터 3개월 징직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여학생 3명은 지난 9월 S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성추행] 성추행 교수 위자료지급 판결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창원 대대하고 송아무개(50·법학) 교수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제자 3명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료를 물게 됐다. 창원지법 제12민사단독 강석규 판사는 20일 “송 교수가 사제지간의 윤리를 저버리고 잇단 성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세 학생에게 한사람당 4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솔 교수는 수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오다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 지난해 11월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뒤 휴직중이다.

부산] "교수가 강사자리 미끼로 성추행"

부산 모태 총여학생회와 부산성북력상담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학 교수가 강사자리를 미끼로 시간강사를 삼습적으로 삼추행했다고 주장, 학교측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만난 A교수가 B(여)씨에게 시간강사자리를 주선하고 교수임용에 필요한 공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학교 연구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A교수가 일부 재학생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A교수의 공개사과와 학교 측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B씨에게 시간강사 자리를 주신해 4년 동안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B씨가 교수임용

1

[illegible]

학생회는 사건 이후 지난달 20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지난 26일부터 사회과학관과 도서관에 대자보를 붙이고 이 사건의 공론화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문제의 A조교가 즉시 조교직에서 물러나고 성인식에 대한 재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조교는 사건직후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사회복지학과 교수회의와 학생회의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교직을 내놓고 성 인식 재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5

Figure 1.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initiator on the polymerization of *l*-lysine.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 판사는 7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씨는 지난 97년 3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아무개(22)씨에게 “저항하면 성적과 진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추행하는 등 제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김씨 등 3명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허위내용”이라며 맞고소했다. 국씨는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수사 및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다음으로 22의 특별기내의안전으로 연식 순화대응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

《유대 사표권 서간》

○ ○ ○ ○ ○

34. (33. 1212/연14에 연서조이 기위다이)에 힘으로 시지 저스

- 2.0
-
- 1.5

- 11/17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사과문 발표
- 11/18 합창단장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과는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위협적이기까지 했다는 여러 면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다시 만남. 이 과정에서 언어성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폭력이 있음을 알아냄.
- 11/19 학생회장을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정반대 입장 또한 전달받았음. 성악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 11/20 성악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합창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악과, 아니 음악대 전체의 성폭력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를 만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전달.
- 11/23 음악대 정문 게시판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공고
(설문조사 결과는 100%의 여학우가 거의 매일 언어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성추행 또한 50%에 가까운 여학우들이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간 및 강간미수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들이 섹스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사건 또한 간간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및 상담기구 설치 그리고 음악대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0%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11/23 음악대 여학생회장을 만남.
이 과정에서 음악대 성폭력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여학우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 음악대 성악과 성폭력 사건의 해결방향을 합창단장 중심이 아닌 음악대 내 성폭력 근절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연대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음악대 사람들의 비협조와 1312의 비공신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음악대 여학생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총여학생회를 만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구원당 배서 배포

특별 계획 → 초안

다음달임 온라인 자료 공유

우리팀
[피해자 사례까지 쏘강자 대장 정해서
사양해서]